

목포권

목포대학교 개교 60돌

‘지역 선도’ 60년... ‘새 도약 60년’ 선언



31일로 개교 60주년을 맞는 목포대가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열고 새로운 출발과 도약을 다짐하고 있다. 목포대는 지난 6월8일 개교 60주년 선포식을 갖고 연말까지 다채로운 행사를 펼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전국 13개 대학 200여명이 참가한 전국교수배드민턴대회와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디자인캠프를 통해 학교 위상을 높이기도 했으며 기념 사업회 홈페이지를 제작해 교직원과 학생, 동문회 등의 만남의 장을 만들기도 했다.

8월과 9월에는 울산대 등 10개 대학 248명이 참가한 영·호남 대학생 간 교류 증진 프로그램을 개최했고 자전거 국토순례와 전국고교 일본어 이야기대회, 기념우표발행, 멀티미디어 페스티벌, 살기좋은 전남 만들기 심포지움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축제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켰다.

연말까지 다채로운 행사

또 한·일 국제 심포지움과 조훈현 바둑대회, 전국고등학교 중국어 이야기, 60m 김밥 만들기 등 다양한 개교기념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고석규 기념사업추진위원장은 “앞으로 11월과 12월에도 신인선 발굴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평생학습축제대회, 총장배

마이크로로봇경진대회 등에 이어 서남해 도서·해양을 소재로 한 심사위원들의 사전전을 끝으로 60주년 기념행사가 막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27일 목포 웨딩팰리스에서 열린 ‘개교 60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 행사는 박준영 전라남도지사, 정종득 목포시장 등 목포권 주요 기관장과 한화갑 의원, 이상열 의원, 최태욱 후원회장 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음악회, 자랑스러운 목포대인상 시상, 기념 패션쇼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1946년 목포사범학교 개교

또 김대중 전대통령, 이명박 전서울시장, 조훈현 국수, Philip A. Kuhn 미국 Harvard 대학교 역사학 석좌교수 등이 영상을 통해 개교 60주년 축하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목포대학교는 1946년 10월 목포사범학교로 개교한 후 1978년 목포초급대학으로 개편되었고 1979년에 4년제 국립목포대학으로 승격됐다.

1981년 도립캠퍼스를 기공하여 1982년 1



지난 11일 60주년 기념행사 일환으로 열렸던 ‘60m 김밥만들기’. 오는 12월까지 다양한 개교 기념행사가 펼쳐진다.

호관을 준공하고 1987년에는 전국 최초로 직선 확장선거를 실시했으며 1990년에 종합대학으로 승격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동문 3만5천여명 배출

목포대는 지금까지 박사 98명, 석사 2천 138명 등 3만5천여명의 인재를 배출했으며 현재 12개 학부, 15개 학과에 8천900여명이 재학중이다.

목포대는 지역 특성에 맞는 학문진작과 연구에 힘써왔다. 지난 1983년 문을 연 도서관 화연연구소는 역사학, 사회학, 민속학, 자연생태학 등 4개분야 전문가들이 섬을 주제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도서관화문콘텐츠는 이미 그 명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역사문화부는 역대교수진을 중심으로 지방사를 다루는 최초의 전국학회를 조직, 활동하는 등 지역인재육성과 지역발전을 선도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농촌공 무안신안지사 올 ‘영농규모화’ 목표 초과

234농가 평균 경작면적 4ha

전남 평균 보다 2.38ha 많아

한국농촌공사 무안·신안지사(지사장 박석윤)가 영농규모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올 목표대비 110%를 초과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무안·신안지사에 따르면 18일 현재 영농규모화 사업 실적은 95억1천200만원으로 전체 목표액 87억6천600만원에 비해 10%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영농규모화사업비를 지원

받은 234농가의 평균 경작면적은 4ha로 전남도내 농가호당 경영면적 1.62ha보다 2.38ha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안군 안좌면 참마리에 거주하는 김영진(28세)씨는 20ha의 농지를 경작, 올해 1억5천만원의 조수익이 예상된다.

영농규모화사업은 쌀전업농에게 대단위 집단영농이 가능하도록 농지의 매입 지원, 임차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서 쌀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배우는 보람, 함께하는 평생학습

내일 목포평생학습축제

제 1회 목포평생학습축제가 31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개최된다.

‘배우는 보람,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평생학습’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학습과 문화, 스포츠 등이 복합된 종합축제로 아동에서 노인, 장애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학습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특히 산정동 등 13개 주민자치센터의 우수 프로그램 발표회와 독서강연회, 한글백일장 대회, 학습동

아리발표회, 스포츠 동호인 친선경기 등이 열릴 예정이어서 평생학습 관계자와 시민들의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

지난 2004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은 목포시는 평생학습조례제정과 서남권아카데미 강좌운영, 성인문해교육,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 등 다양한 시책을 펴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평생학습과 주민자치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번 축제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내달 5일 흑산도 홍어젓 바위낚시대회

제 3회 흑산도 홍어젓 바위낚시대회가 흑산도 큰바다낚시 클럽(회장 조성모)이 주관하고 흑산수협·흑산면 후원으로 11월5일 흑산도 일대에서 열린다.

순암 정약전선생의 뜻을 기리고 흑산도의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대회는 4일 전야제 등 다양한 이벤트도 펼쳐진다.

경기방식은 감성돔과 돌돔은 25cm

이상, 참돔은 40cm 이상을 대상으로 순위를 결정하며 대어상과 다어상 등 특별상도 주어진다.

참가비는 1인당 5만원이며 선착순 100명에게는 무료 숙박이 제공된다. 우승자와 준우승자 각 1명에게는 우승트로피와 상금 50만원과 30만원이 수여된다. 접수 및 문의는 011-752-1895, 017-631-9198. /신안=조완범기자 wncho@



“해양 분야 집중 환태평양권 글로벌 거점대학 육성”

임병선 목포대학교총장

“해양 분야로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목포대학교의 역량을 결집시켜 환태평양권 글로벌 거점대학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목포대학교 임병선 총장은 개교 60주년을 맞아 대학 발전의 장기 비전을 이같이 밝히고 “실무형 인재양성과 특성화 경쟁력 확보, 동북

아 국제교류 중심대학으로 발돋움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목포대는 지난 3월 임병선 총장이 취임하면서 전남도청 이전과 기업도시 선정 등에 따른 지역 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지역 산업 여건을 반영한 대학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임총장은 “누리 조선사업단이 혁신성공 사례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IT기반 서남

권조선산업 혁신센터 개소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소개하고 “전남 서남권의 발전을 이끌기 위하여 지난 9월 발족한 ‘지역협력단’의 연구와 활동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임총장은 또 “동문과 지역 인사, 해외 동포, 교직원 등 대학과 관련된 대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대학 재정을 확보하는데 한층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for '25th Anniversary Customer Love' at Gumsu Jang, featuring a 25-year history and special offers.

Advertisement for FURUKAWA air conditioning units, highlighting energy efficiency and various models.

Advertisement for a building project, featuring an 'OPEN' sign and details about the development.